2018. No.68

인천교구 선교소식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르 8,29)

Contents

2 은총이 샘솟는 자리
3 선교 체험 수기
4 선교 활동 지침
5 선교 위원회 소식
6~7 교구 선교 발자취
8 공지사항

발행인 | 명형진 시몬 신부 **편 집** | 복음화사목국 선교사목부
발행일 | 2018년 6월 29일 **창간일** | 2002년 1월 12일
선교사목부의 선교 소식지는 [카페] http://cafe.daum.net/mission50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천주교 인천교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요한 6,68)

명형진 시몬 신부 | 복음화사목국 부국장(선교사목부)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구절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당신은 생명의 빵이심을, 그리고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실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의아해하며 거북스럽게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나설 때부터 그분께서는 권능과 위엄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실 분이심을 강렬하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들에게 깊게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58)라는 말씀에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6,60)라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열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6,67)

열두 제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6.68)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열두 제자들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함으로써 부활의 희망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라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 안에 늘 머물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요한 6,68 참조)》(2018년 교구장 주교님 사목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역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가온 부르심에 세례로써 응답했고, 그분을 주님이시라고 외치며 따라나섰습니다. 그 외침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한 14,6 참조)이라는 복음의 기쁨으로 세상에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선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2017년 세계 전교의 날 교황 프란치스코 담화)

저는 지난 1월 복음화사목국 선교사목부의 새로운 소임을 시작하며 선교에 대해 고민하고 묵상하는 기회를 자주 갖고자 노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한 선교는 대단한 기술과 방법론보다는, 복음의 기쁨 안에 살아가며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주님의 자녀가 된 세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명일 것입니다.

2018년 한 해의 중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 교서를 다시금 생각하며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9)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세례 신앙을 통하여 세상 안에 어떻게 외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외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묻는 ‘우리가 가야할 길’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모시고 전하기 위해 가야할 길 또한 선교의 직무를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야할 길일 것입니다.(2017년 세계 전교의 날 교황 프란치스코 담화)

주교님의 2018년 사목 지향에 맞추어 세례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길을 다시금 주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 믿음도, 신앙의 열정도 키울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교사라는 사명이 단순히 선교의 특별한 소임을 맡고 있는 신자 분들께만 맡겨진 것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 즉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달릴 길을 다 달려 믿음을 지킨다면, 의로움의 화관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2티모 4,8 참조)

선교사 학교 개인별 선교 체험 수기

제16기 수료자 박정숙 아나스타시아

큰딸아이 고등학교 학부모 모임의 친구를 입교시켰던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로 인하여 인연이 되어 3년간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던 학부모들끼리 간간이 안부를 묻고 차도 마시며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편안한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었는데 그 중 3명은 천주교 신자였고 2명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신자였던 친구들을 배려한다고 신앙에 대한 대화를 일부러 꺼내지 않았으나, 교회 안에서 꿀보다 달고 귀한 정보를 나 혼자 갖고 있다는 게 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모임 때에 그간 봉사하며 느꼈던 따뜻한 이야기, 공유하고 싶었던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메모하여 전해 주고, 본당에서 피정이나 행사가 있으면 은총의 시간을 접할 수 있도록 초대를 했습니다. 신자 중의 한 언니는 냉담 중이라며 "난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천주교 상식과 은총의 열매에 대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2년 정도 지나자 모임의 비신자 친구들에게도 천주교회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관계 선교의 열매일까요! 드디어 냉담했던 언니는 고해성사를 통해 주일 미사를 지키며 종종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비신자였던 두 친구도 입교 권면에 응하여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까지 받아 어엿한 신앙인으로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 모두 직장을 다녀서 봉사할 여건이 쉽지 않은데도 한 친구는 저녁 팀 레지오 단원이 되어 성모님의 군사로서 그리고 청소년 분과에서 하느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열심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지만 주일미사를 궐하지 않으며 레지오 협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아 성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저는 가까이에서 선교 활동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하여 저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그 자리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나의 부족한 빈 공간을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이번 3월에 신부님의 격려 속에서 선교사 학교 과정을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시작했는데, 두 학기 동안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부과된 가두 선교 체험 실습 등 과제들을 수행한 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도움들을 자세히 정리해보면, 첫째, 본당에서 성경 그룹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 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한층 성장한 교리 지식을 그룹 교우들과 공유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가졌던 궁금증들을 나누고 해소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지속적인 학습과 배움으로 '깨어 있는 봉사자'가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둘째, 레지오 쁘레시디움 단장으로서 선교 활동에 대한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단원들에게 보다 폭넓은 훈화와 신앙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입교하는 예비 신자들과 함께 할 희망을 가지며 교리 교안 작성법 활용을 기대합니다.

셋째, 조별 가두 선교 체험 활동으로 본당 교리반에 예비 신자를 인도하였고 타 본당 냉담 교우도 성사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의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머물며 자비를 청합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2)

가정 방문 실시 방법 및 유의 사항

본당에서 레지오 활동 등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하다 보면 점점 문턱조차 넘기 어려워져, 가정 방문은 이제 옛날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입 교우, 냉담 교우, 예비 신자에 대한 선교 활동은 가정 방문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정 방문 실시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정 방문 사전 준비

○ 대상 선정 : 전입 교우, 냉담 교우, 예비자 교리 중단자 등을 본당 사무실, 교리반에 문의하여 선정
- 방문 대상자에 관한 신앙생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활동 계획 수립 (단, 사생활 관련 내용 주의)

○ 활동 준비 :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주보, 본당 안내서, 교리서, 팔목 묵주, 주임 신부 편지 등)를 준비
- 방 문대상자에게 필요하거나 감명을 줄 수 있는 자료와 정성이 담긴 작은 기념품(선물) 선정

○ 인적 구성 : 방문 대상자의 지인, 또래나 이웃과 동행하여 보다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인적 구성
- 지인(전적 본당 교우, 직장 동료), 이웃(구역, 반원), 또래(본당 단체 신자), 교리반 동기 등과 연계 활동

2. 가정 방문 실시 방법

○ 가능한 사전에 대상자에게 전화로 대강의 방문 계획(시간 협의)을 알리고 가정 방문을 실시한다.
- 방문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되, 지인·이웃은 1인이 할 수 있으나 가능한 3인 이상은 피한다.

○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고 해당 가정에서 신원을 확인할 때 또렷하고 부드럽게 신분을 알린다.
(예: Q. 누구세요? A. 안녕하세요. ○○○+세례명님 댁이지요.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 현관문을 열어주면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고 밝은 미소로 고개를 숙이며 정답게 인사를 건넨다.
(예: 상황에 따라 "○○성당 전입을 환영합니다." "이웃 ○○○인데 반갑습니다." 등등)

○ 집안에 들어서면 진정한 마음으로 "이 가정의 평화를 빕니다."라고 기도하고 안내에 따른다.
(가정의 십자고상, 성모상, 성화 등을 살펴 대화에 참고하고, 교패가 없으면 부착하도록 한다.)

○ 방문자는 겸손한 자세로 예의를 갖추어 대상자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며 감동을 표현한다.
- 방문 시간은 부담되지 않도록 10분 내외로 하고 "가정을 위한 기도"(기도문 준비)를 바친다.

○ 다음 번 가정 방문이나 성당 등에서 만날 약속을 정하고 기도 중에 기억할 것임을 알려준다.
- 주보, 소식지, 기념품 등을 전달하고 방문 시간이 소중하고 기쁜 시간이 되었음을 표현한다.

3. 방문 활동 후속 관리

○ 방문 결과를 대상자에 따라 해당 구역(반)장 또는 교육 선교 분과장에게 전달하고 긴밀하게 협조한다.
- 조당자가 있으면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통해 해소 방법을 확인하고 직접 전달한다. (비밀 준수)

○ 냉담자는 매주 주보를 메모(인사말, 구역 모임, 본당 행사 일정 등)와 함께 우편함에 투입한다.
- 인사말은 전례력에 따라 간단하게 쓰는 것이 좋다. (예: 부활 축하, 성령의 은혜, 성모님의 사랑)

○ 선교 대상자 가정의 경사에는 마음의 선물(성물)을 전하고 조사에는 직접 조문하고 위로한다.

선교 활동 기본자세

선교 활동을 할 때는 복음 말씀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마태 13,1-9; 마르 4,1-9; 루카 8,4-8)를 생각하며 당장 어떠한 성과(결실)가 눈에 보이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선교 활동이 작은 씨가 되어 그 씨앗이 자라나 큰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1 선교사 학교 봉사자 및 선교 분과 지구 대표 워크숍

워크숍 기념 단체 사진

선교사목부는 지난 2월 24~25일 강화도 온수 본당에서 선교사 학교 그룹 봉사자 및 지구별 선교 분과 모임 대표 등 약 30명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봉사자들은 조별 나눔 진행 방향과 실행 방법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고, 지구 대표들은 본당의 다양한 선교 활동 소식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음화 사목국장 이경환 비오 신부는 특강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려면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선교사목부국장 명형진 시몬 신부는 각자의 굳건한 신앙생활 안에서 즐겁게 봉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2 제17기 선교사 학교 입학식

선교사 학교 개강미사

인천교구 제17기 선교사 학교 입학식 개강 미사가 3월 8일 교구청 내 증거자 박순집 베드로 홀에서 72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대리 정윤화 베드로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총대리 신부는 선교사는 외롭고 힘들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구자의 길을 걷는 자세를 갖춰야 하며 가톨릭 신앙의 목적은 자신의 구원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도록 강조했다.

수강생들은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요한 6,68)라는 주제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묻고 고민하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신앙심과 교리 지식을 키우는 시간을 갖는다.

3 선교사 학교 주교님 특강 실시

선교사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주교님

인천교구 교구장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는 3월 22일 제17기 선교사 학교 수강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교리 교육 일반론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정신철 주교는 교리교육의 어원이 “메아리(울림)”라고 설명하고, 교황 요한바오로 2세 회칙에 의한 교리교육의 정의와 효과적인 교육 방법 등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수강생들은 선교사 학교 1학기(3-6월)에는 예비자 교리 교재 ‘여기에 물이 있다’ 를 통해 10주 동안 나눔을 갖고 강의를 듣게 된다.

4 2018 지구별 선교분과 모임

서구 지구 선교분과 모임 (석남동 본당)

2018년 각 본당의 선교분과·선교위원회 지구 모임이 지난 1월 15일 청학동 성당에서 가진 연수지구 모임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선교사목부(명형진 시몬 신부)에서는 각 본당의 선교분과(차)장, 선교위원들이 분기별로 지구 모임을 갖고 다양한 선교 활동 소식을 나누며 서로 친교를 이루어 선교 의식을 고취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복음화에 필요한 보다 폭넓은 안목과 역량을 쌓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서해안의 슈바이처 최분도 신부의 선교활동을 돌아보며(5)

지난 호(67호)에 이어서

지금까지 선교 소식지는 네 차례에 걸쳐 미국 메리놀 외방 선교회 최분도 신부가 인천교구 초창기에 30여 년간(1959~1990) 헌신적으로 펼쳐왔던 선교 활동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서해안의 슈바이처, 섬마을 문명의 개척자, 혼혈아의 어버이, 억압받는 이들의 보호자로 불리던 최 신부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을 선교 활동 방법과 실천할 자세를 묵상하고자 한다.

≫ 평범한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소명을 찾아 최선을 다한다.

최 신부는 어렸을 때 미시시피강에 빠져 죽는 친구를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던 형이, 한강에서 두 소년을 구해내고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된다. 최 신부는 형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 UN군으로 참전해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게 된 형의 마음과 하느님의 뜻을 보았고, 미네소타교구의 신학생으로 고향에서 편안하게 사목 활동을 할 수도 있었으나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를 위해 무임승차까지 감행하며 기차로 12시간을 달려 뉴욕 메리놀 외방 선교회 총장 신부를 설득한다.

≫ 항상 기도하며 먼저 하느님의 뜻과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최 신부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길을 나섰고 복음 선포에 앞서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생각하며 먼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였다. 연평도 앞바다의 조기잡이 배의 어로 작업 중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며 시작한 것이, 한국 최초의 민간 병원선 '바다의 별' 해상 순회 진료였다는 점에서 최 신부의 이러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덕적도 본당에는 병원을 먼저 신축할지 성당을 먼저 건축할지를 고심했고 결국 같은 날에 축성식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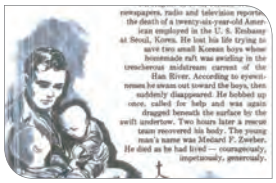
≫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올바른 가치를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하여 세상에 드러낸다.

최 신부는 미신이 만연한 서해 도서에서 사목 활동을 하며, 완고한 주민들의 세상적인 가치를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전국 각지에서 성어기에 연평도로 모여든 어부들을 노리는 향락 문화에 맞서 접대부 없는 신자 주점을 만들고 접대부에 셋방을 주지 않는 방법도 권장한다. 굿으로 병을 고치려는 무당의 딸을 찾아 직접 치료하고 양약으로 생명을 구하고, 풍어제로 바다에 버린 액막이 닭을 잡아다 삶아 먹으며 하느님의 가치를 식별하고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 선교 대상자의 꿈을 알아내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청하고 솔선수범한다.

최 신부는 덕적도 섬마을 주민들이 즐겨 부르는 '덕적가'라는 노래를 들으며, 그들의 꿈이 전깃불과 같은 낙후된 문명의 발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최 신부는 측은지심을 품은 기도 안에서 '덕적도 문명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미국의 지인들에게 밤새워 편지를 쓰며 이들의 꿈을 함께 이뤄 가자고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를 체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민들보다 먼저 푸른 눈의 사제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전봇대를 어깨에 메고, 암석을 나르며 솔선수범했으니 누가 따르지 않았겠는가!

메리놀 외방선교회



메달도의 살신성인

병원선 바다의 별

볏단을 나르는 최 신부

동일방직 똥물 사건

입양 아동과 함께

사할린 한인 성당

최분도 신부 묘소

≫ 하느님의 도우심을 굳게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신념과 의지를 갖다.

최 신부가 최초로 운행한 병원선 '바다의 별'은 한국 전쟁에 투입되었던 Q보트를 개조한 것인데, 어느 날 이를 타고 덕적도 본당 주일미사에 가기 위해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출항한다. 그러나 엔진 고장으로 거친 풍랑 속에 표류하는 위기를 맞게 되고, 바닷물도 얼어붙는 겨울 바다 한복판에서 선장과 선원들 모두 높은 파도에 기진하여 쓰러진다. 최 신부는 자신의 고집을 돌아보며 오로지 선원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수 없이 시동을 걸었고, 엔진을 살려 기적적으로 귀항하게 된다.

≫ 병들고 아픈 이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항상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최 신부는 덕적도에서 한 아이가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는다. 십여 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의술로는 심장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미국에서 무료로 수술해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아이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고, 캐나다의 병원과도 직접 연결하여 170여 명의 심장병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다. 이 외에도 소아마비, 성 기형아, 외눈아 등의 치료와 수술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관련 기관장을 찾아다니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수용하고 함께하며 정의로운 일의 실천에 앞장선다.

최 신부는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민청학련 사건의 도피자 가족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하고 1978년 동일방직 똥물 사건 때는 회사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본당에서 노조원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등 약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다가, 결국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기도 한다. 혼혈아 940명을 포함한 1,600여 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미국 가정에서 입양하도록 추진한 것도 세상의 따돌림에서 이들을 구해내려 한 것이다.

≫ 순명(順命) …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찾고 자신의 소명(召命)을 다한다.

최 신부는 한국에서 죽고 한국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사제의 길은 순명(順命)의 길… 1990년 뉴욕 메리놀 본부의 부름을 받고 미국으로 소환되어 성소 사목을 위해 헌신한다. 그러나 다시 한국과 한국인을 위해 선교할 꿈을 버리지 않고 러시아 사할린의 파견을 자원했다. 그곳에서 한인 성당을 건축하던 중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평생의 소원이신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을 위해 14시간을 달려가서 성사를 집행했는데, 그것이 사제 서품을 받고 자신이 수행한 가장 보람 있는 일(召命)이었다고 회상한다.

미국 메리놀 외방 선교회 소속 최분도 신부… 그는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2001년 미국 뉴욕에서 하느님의 품에 들었으나, 그가 온 생애를 바쳐 사랑한 한국을 위해 하늘의 성인이 되어 기도할 것이다. 어머니의 선종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 신부가 성당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모습이 마치 초상집의 한국 사람과 같았다는 한국인 사제의 증언은, 그가 얼마만큼 한국과 한국인에 동화되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우리 인천교구는 2021년 교구 설정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인천교구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정착하기까지 미국 메리놀 외방 선교회에서 파견된 사제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17기 선교사 학교 가두 선교 체험 실습

선교사 학교 수강생들은 1학기 조별 과제의 하나로 가두 선교 체험 실습을 진행하였다. 봉사자와 함께 선교 일정, 선교 장소, 선교용 물품 등을 협의하고 고리기도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실제 상황과 같은 역할극을 통해 선교 방법에 대비하며 실습 준비를 하고 선교 체험에 나섰다.

구분	일자	시간	선교 장소	구분	일자	시간	선교 장소
제1조	5월 13일	14:00	송현동 홈플러스	제7조	4월 28일	14:00	상동호수공원
제2조	4월 28일	13:00	소래생태공원	제8조	4월 21일	14:00	송내 남부역
제3조	5월 13일	14:00	소래산공원 입구	제9조	5월 12일	14:00	문학산 입구
제4조	5월 27일	09:00	연희공원		5월 19일	14:00	중앙공원
제5조	4월 28일	14:00	청라성당 부근	제10조	5월 12일	14:00	송내 남부역
제6조	4월 22일	14:00	호수공원	제11조	5월 12일	14:00	송내 남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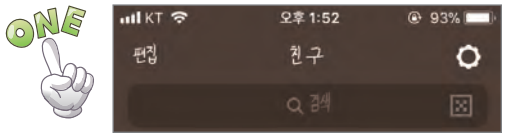
2018 지구별 선교분과 모임 일정(안)

지구	일자	시간	모임 본당	지구	일자	시간	모임 본당
강 화	5월 9일(수)	19:00	온 수	김 포	6월 27일(수)	20:00	운양동
부천 1	5월 16일(수)	20:00	역 곡	중동구	6월 27일(수)	19:30	영 종
남 동	5월 23일(수)	20:00	만수3동	계 양	6월 29일(금)	20:00	효성동
시흥안산	6월 5일(화)	20:00	대야동	연 수	7월 2일(월)	20:00	청학동
서 구	6월 15일(금)	20:00	검암동	강 화	8월 22일(수)	19:00	강 화
남 구	6월 20일(수)	19:30	주안8동	부천 1	8월 22일(수)	20:00	역곡2동
부 평	6월 20일(수)	20:00	-	남 동	8월 24일(수)	20:00	서창동
부천 2	6월 20일(수)	20:00	중 동	- 이후 일정은 다음 소식지에서 안내 예정 -			

※ 위의 일정은 지구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에는 선교 위원회 기획부로 연락 요망)

KakaoTalk 플러스친구

천주교 인천교구 플러스친구 소개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검색창 터치

검색창에서 아이디 입력

'천주교 인천교구'를 친구추가 하시면 선교 소식지와 선교 사목에 관련된 소식, 인천주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